

Latin American Culture

문화예술

탱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이렇게 춤다

김혜진

하나의 심장, 네 개의 다리

탱고 살롱에서¹⁾ 음악이 흘러나온다. 한 타임의²⁾ 춤이 시작된다. 춤을 출 상대를 찾는 남녀의 시선이 부딪힌다. 눈빛이 오가고, 가벼운 눈인사를 주고받음으로써 암묵적인 동의가 이루어진다. 여인에게 다가간 남자가 손을 내밀고 플로어로 나간다. 어떤 여인은 남자의 목에 팔을 감고 자연스럽게 안기고, 또 어떤 여인은 남자의 손과 팔을 잡는다. 목을 감고 안긴 여인은 눈을 감기도 한다. 제자리에서 한 두 걸음 서로의 스텝을 맞춘 남녀는 그대로 음악을 따라 플로어를 둥글게 돌며 탱고를 추기 시작한다.

탱고 춤의 특징은 첫째도, 둘째도 안기(abrazo)이다. 그러나 상대를 온몸으로 꼭 끌어안지는 않는다.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안기는 상체를 고정시킨다는 점에서 왈츠와 유사하다. 그러나 왈츠와 다르게 탱고는 상체 상부만 고정하고, 상체 하부는 계속 방향이 달라진다. 하나가 된 두 사람에게 전진하는 방향을 바라보는데 필요한 것은 남자의 두 눈 뿐이다. 그래서 춤을 추는 상대와 눈을 마주치는 일이 거의 없다.

이러한 탱고는 가슴을 맞대고 추든, 약간 떨어져 추든, 두 사람의 배

1) 탱고 살롱(milonga): 밀롱가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음악 장르명이고, 다른 하나는 탱고를 추는 살롱을 의미한다.

2) 춤이 시작되면 한 번에 서너 곡을 연속 추는데, 이를 가리켜 타임(tanda)이라고 한다.

몸의 방향이 서로 마주보는 것을 추구한다. 남자가 여자의 상체의 방향을



탱고의 다리걸기(출처: <http://www.emilieboudet.com>)

틀어 서로의 배꼽이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지면 마주보는 방향으로 몸이 돌아오면서 춤이 이루어진다. 상체에서 시작된 움직임이 하체로 돌아오는 춤이다.

탱고의 또 다른 특징은 상대방의 영역 침범이다. 대표적인 동작은 다리걸기(gancho)인데, 상대방의 다리를 사이에 자기 다리를 넣어서 갈고리처럼 감는다. 간혹 커플댄스에서 상대방의 영역을 슬쩍 넘보는 동작이 있지만 탱고처럼 스텝의 공간을 침범하는 일은 거의 없다. 걷는 공간을 침범하면 스텝이 꼬이거나 넘어지고 다치기 쉽다. 그러나 탱고는 상대방의 걷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엿보고 침범하며 엮이고 풀어내는데, 이것이 바로 탱고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매력이다.

탱고는 추는 동안 끊임없이 걷는다. 때로는 제자리에 머물거나 선 자리에서 격렬한 동작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지나온 길을 되돌아가지는 않는다. 다른 커플의 춤을 방해하지 않고 탱고 살롱 안을 크게 돌면서 춤을 춘다. 남자는 여자에게 가는 길과 다음 패턴을 제시한다. 남자가 리드하는 춤이다. 하지만 여자가 따라가기만 하지는 않는다. 때로는 기다리기를 요구하고, 때로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도,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도 한다. 그렇지만 남자가 길을 제시하기 전에 혼자 움직일 수는 없다. 그렇게 순간순간의 감정, 생각, 상대방의 호흡까지 교감하는 춤이 바로 탱고다. 그래서 한 파트너와 춤을 추는 탱고의 한 타임을 인생에 비유한다.

탱고를 추는 모습을 지켜보면 독특한 장면이 눈에 띈다. 한 타임이 끝나면 바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정지하는 것이다. 탱고는 에너지를



카치롤로. 남녀가 나뉘어 앉고, 호스트가 자리를 지정(출처: <http://www.tangotrails.com>)

걸으로 화려하게 발산하기보다는 안으로 수렴하는 춤이다. 그리고 상대방과의 교감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한 타임의 희노애락을 함께 보낸 파트너와 음악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헤어질 수는 없는 법이다.

이렇게 상호 고개 끄덕거림으로 시작한 한 타임이 끝나면 상대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고 각자 테이블로 돌아간다. 이때는 탱고와 전혀 상관없는 장르의 음악이 나온다. 잠깐의 휴식 시간이 찾아온 것이다. 그 사이에 다른 파트너를 찾고, 다시 한 타임의 탱고가 시작된다.

부에노스아이레스 탱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사람들은 탱고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하다. 그러나 현대 아르헨티나의 젊은이들은 탱고를 전통 혹은 기성세대의 것으로 여긴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탱고를 보려고 탱고 살롱을 찾으면 대개 관광



카테드랄(출처: <http://www.airplanesandwaterfalls.wordpress.com>)

상품화된 탱고를 만나게 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초급 강습을 하고, 탱고와 여러 아르헨티나 전통 춤을 함께 공연한다.

탱고 마니아들이 즐기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탱고의 진수를 보려면 밤이 한창 무르익어 11시쯤 탱고 살롱에 가야한다. 그러면 살롱을 빌려 그날의 모임을 주최하는 호스트를 만날 수 있다. 호스트가 누구냐에 따라 탱고 살롱의 스타일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격식과 품위를 중시하는 클래식한 분위기부터 시끄럽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탱고 살롱도 있다.

보통 탱고 살롱에 들어서면 순서대로 입장하고 앉을 자리를 안내받는데, 호스트가 앉을 자리를 지정해주는 곳도 있다. 클래식 탱고 살롱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카치룰로에서는³⁾ 플로어 가장자리에 둥글게 좌석을 배치하는데, 남자 좌석과 여자 좌석이 분리되어 있다. 남녀의 시선은 플로어를 통과하고, 이어 가벼운 눈인사를 주고받는다. 한가운데 자리를 지정받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탱고 살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3) 화요일과 토요일에 각각 El Beso(Riobamba 416번지)와 Obelisco Tango(Av. Entre Ríos 1056번지)에서 열린다.

로부터 레이저와 같은 눈인사 세례를 받는다. 아무튼 클래식한 분위기일수록 격식을 갖춰 차려입는데, 여자는 대개 치마를 입는다.

이에 반해, 카테드랄의⁴⁾ 분위기는 아주 펑키하다. 시끄럽게 떠들며 맥주를 마시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다가 손을 내밀거나 말로 춤을 신청하기도 한다. 복장도 청

바지부터 아주 자유롭고, 운동화나 슬리퍼를 신고 춤을 추기도 한다. 이처럼 매일 매일 호스트가 다르고 탱고 살롱의 분위기가 다르므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인터넷 사이트를⁵⁾ 개설하여 공연 정보와 함께 오늘의 탱고 살롱과 호스트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탱고 음악은 일찍 소개되었다. 그러나 탱고를 공식적으로 추기 시작한 때는 1995년이였다. 지금은 카바레 춤이라는 인상을 극복하고, 일본과 더불어 세계탱고대회(Campeonato Mundial de Baile de Tango) 아시아 예선전을 개최하는 국가로 성장했다. 세계탱고대회 예선전에는 아르헨티나에서 심사관이 파견되고, 우승자는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결승 진출 티켓을 거머쥘다. 한국의 한의 정서와 잘 어우러지는 애환의 춤인 탱고는 한국인이 가장 깊게 빠질 수 있는 춤이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방한한 부에노스아이레스 사람들은 한국을 ‘아시아의 부에노스아이레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2015년 세계탱고대회 살롱탱고 부문 우승자 커플(출처: <http://festivales.buenosaires.gob.ar>) 세계탱고대회는 살롱탱고(규정종목)와 공연탱고(프리종목) 두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김혜진 — 라틴아메리카 춤과 음악의 프리랜서

4) Sarmiento 4006번지

5) 사이트명: Hoy Milonga. 사이트 주소: <http://www.hoy-milonga.com/buenos-aires>